

# ‘번역서평’을 제안한다

## 평가·검증의 체계적 장치가 필요한 때

김옥동

서강대 교수·영문학

흔히 번역을 두고 ‘반역(反逆)’이라고 부른다. 한 나라의 말로 된 글을 다른 나라 말로 옮겨 놓는다는 것이 그만큼 어렵다는 뜻일 것이다. 미국의 국민 시인으로 높이 칭송받는 로버트 프로스트는 시를 정의하면서 다른 나라 말로 옮겨놓을 때 옮기지 못하고 남겨 두는 것이 바로 시라고 말한 적이 있다. 이 또한 문학 작품을 다른 나라 말로 번역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지적한 말이다.

이러한 현상은 특히 비유적이고 수사적으로 언어를 사용하는 문학 작품의 경우에 훨씬 극명하게 나타난다. 그러나 문학 작품이 아닌 일반 저서를 번역할 때도 비록 정도의 차이는 있을망정 마찬가지로 어려움을 겪게 된다. 문학 작품이건 문학 작품이 아닌건 다른 나라 말로 번역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따르게 마련이다.

### 오역의 몇가지 사례

번역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좀더 쉽게 알기 위해서 몇 가지 오역의 예를 들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험릿》이라고 하면 토머스 칼라일이 일찍이 인도와도 바꾸지 않겠다고 말할 만큼 영국 사람들이 그토록 자랑스럽게도 생각하는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가장 유명한 작품이다. 이 작품에서 셰익스피어는 장교들이 등장하여 서로 인사를 나누는 첫 장면을 시작한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우리말 번역서에는 장교들이 상대방에게 “오늘은, 오늘은”이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문맥으로 보아 도무지 뜻이 통하지 않는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정도가 되어야 하는데 말이다.

나중에 알게 된 것이지만 번역자가 영어 원본에서 직접 번역하지 않고 일본어판에서, 그것도 일본어를 제대로 모른 상태에서 번역한 데에서 빚어진 어처구니없는 오역이었다. 일본어판의 “今日は、今日は”이라는 것은 “오늘은, 오늘은”이라는 뜻이 아니고 대낮에 주고받는 인사말이라는 것쯤은 웬만큼 일본어를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표현이다. 중역에서 비롯되는 오역을 말할 때마다 살아 있는 본보기로서 지금도 자주 인용하곤 하는 고전적인 예이다.

이 일은 비교적 오래 전에 일어난 일이다. 번역자들은 대부분이 일본 식민지 시대에 교육받은 사람들이었고, 또 이 무렵만 하더라도 번역이 아직 제대로 뿌리를 내리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이러한 실수는 어느 정도 이해가 간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오역이 무한 경쟁의 세계화 시대에 이르러서도 마찬가지로 일어나고 있다는 데 있다. 최근에 있는 오역의 예를 한두 가지 들어보기로 하자.

포스트모더니즘의 거센 기류를 타고 프랑스의 사상가들의 이론이 마치 홍수처럼 밀려들어오고 있다. 그 가운데에서도 롤랑 바르트와 자크 라캉은 부쩍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바르트의 저서를 번역한 한 책에는 대학 출판부에서 나왔다고 믿어지지 않을 만큼 곳곳에서 오역이 눈에 띈다. 가령 ‘과녁의 한복판’이나 ‘명중한 화살’이라고 옮겨야 할 것을 ‘황소의 눈’으로 옮겨 놓았다. ‘bull’s eye’라는 영어 관용어 표현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데서 생겨난 오역이다.

프랑스의 정신분석학자 라캉의 논문 가운데

**번역을 평가하고 검증할 수 있는**

**장치로서 번역서평을 제안한다.**

**우선 번역할 만한 가치가 있는**

**책인지, ‘결정판 텍스트’를**

**원본으로 삼았는지,**

**중역은 아닌지, 무엇보다**

**오역이나 지나친 의역,**

**누락번역 등의 문제는 없는지**

**철저하고 체계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

데 19세기 미국작가 에드거 앨런 포의 <도둑맞은 편지>에 관한 글은 아주 유명하다. 이 글에서 그는 문학 텍스트에서 시니피에(의의)보다는 시니피앙(기표)이 더 중요하다는 그 유명한 이론을 펼치고 있다. 그런데 번역서에는 갑자기 ‘고통받는 편지’라는 구절이 나온다. 아무리 비유적인 표현이라고 하더라도 종이에 불과한 편지가 고통받는다는 것은 너무 지나치다.

아니나 다를까 붙여 원문을 찾아보니 오역임이 밝혀졌다. 원문에는 ‘lettre en souffrance’로 되어 있는데 이 말은 ‘고통받는 편지’라는 뜻이 아니라, ‘수취인이 불분명하여 배달할 수 없는 우편물’을 가리킨다. 영어로는 ‘dead letter’이라고 하지만 라캉의 논문을 영어로 번역한 사람이 잘못 번역해 놓은 것을 우리말 번역자가 틀린 번역을 다시 그대로 직역하였음에 틀림없다.

### 번역된 저서의 체계적 검토가 중요

금년에 들어와 번역원이 새로이 설립된 것은 아주 반가운 일이다. 비록 때늦은 감이 없지 않으나 여간 다행스럽지가 않다.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좀더 체계적으로 번역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번역원과 같은 기관을 설립하는 것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번역된 작품이나 저서를 체계적으로 검토하는 일이다. 아무리 동기가 목적이 좋아도 그 결과가 신통치 않으면 별다른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

므로 필자는 번역을 평가하고 검증할 수 있는 장치를 둘 것을 제안한다. 이러한 장치 가운데 하나가 바로 번역 서평이다. 번역 서평은 기존의 간행물들이 맡아도 되고, 일을 따로 도맡아하는 번역 서평 전문간행물이 맡아도 된다. 어찌 되었든 이 번역 서평이 하여야 할 일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번역할 만한 가치가 있는 책이나 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 홍수처럼 쏟아져 나오는 외국의 책을 무분별하게 번역하는 일은 여러 면에서 낭비요 손실이다. 꼭 번역할 만한 가치가 있는 책만을 엄선하여 번역해야 할 것이다. 또한 다른 출판사에서 이미 번역을 하였는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지금 출판가에는 중복 출판 문제가 여간 심각하지 않다.

둘째, 적절한 텍스트를 원본으로 삼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서양에서는 ‘결정판 텍스트’를 둘러싼 이본(異本) 문제가 아주 심각하다. 판본이 하나 이상 될 때에는 반드시 가장 권위 있는 텍스트를 원본으로 삼지 않으면 안된다. 개정판의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나온 텍스트일수록 믿을 만하고, 문학 작품의 경우에는 작가의 의도가 가장 충실히 담겨 있는 텍스트이어야 한다.

셋째, 번역 서평에서는 원문에서 직접 번역하고 있는가, 아니면 다른 나라 말로 번역한 것을 다시 번역하고 있는 것 아닌가를 검토하여야 한다. 특정 외국어의 번역가가 없다는지 피하기 힘든 몇몇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번역은 반드시 원문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앞에서 예로 든 오역의 사례에서 드러나듯이 번역에서 생겨나는 문제는 거의 대부분 중역과 깊이 연관되어 있다.

그리고 전문 서평이 무엇보다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번역이 제대로 이루어져 있는가를 검토하는 일이다. 번역 서평은 바로 이 문제에 가장 큰 관심을 기울여야만 한다. 오역은 없는지, 번역하기 까다로운 부분을 누락한 부분은 없는지, 지나치게 자구에 얽매고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의미의 손실을 가져올 만큼 지나친 의역은 없는지 따위의 문제가 논의될 수 있을 것이다. ❖



일러스트레이션 / 윤주영